

발음기관을 지칭하는 우리말 용어에 대한 고찰

신지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A study on Korean terminology for vocal organs

Jiyoung Shin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shinyoo@chollian.net

요약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심지어는 한 분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불린다는 것은 학습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을 지연시키는 등 정보화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성학에서 기본이 되는 발음기관을 지칭하는 우리말 용어들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알아 보고, 그 통일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발음기관을 부위별로 나누어 어떠한 용어들이 어떤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아 볼 것이다.

1. 서론

같은 발음기관을 지칭하는 우리말 용어는 음성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의 용어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존재는 우선 음성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어 재미있는 음성학 공부를 가로막게 되며, 서로 다른 대응어를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들(음성학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지연시키고, 그 결과 우리말 용어를 사용하거나 우리말 용어로 학습한다는 일에 회의를 갖게 하는 아주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정보화 시대를 역행하는 일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문용어로서 발음기관을 지칭하는 용어가 음성학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상세히 살펴 본 후, 더 나아가 앞으로 음성학자들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이들을 통일시켜 나가야 하는가, 그 원칙을 적용시켜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를 상세히 논의해 보려고 한다.

2. 발음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들

우선 발음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들을 발음기관의 부위별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용어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메타언어를 설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메타언어로 영

어의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목이나 본문에 우리글이 아닌 영어의 알파벳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형태는 현재 학습 현장에서 입말이나 글말로 영어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매우 친근한 형태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 논문에서 한 용어에 대한 해부학[1], 의학[2] 용어와 함께, 음성학에서 비교적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와, 현재 국어학에서 쓰이고 있는 우리말 용어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최현배(1961)[3]와 허용(1965)[4]의 용어를 주 대상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2.1. Larynx

발음기관으로서 larynx 는 발성과 조음을 함께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larynx 는 위로는 hyoid bone 에서부터 아래로는 trachea 의 맨 위쪽에 있는 cricoid cartilage 까지의 부분을 일컫는다. 그림 1 은 후두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여 준다.

그림 2 에서 보듯이 larynx 는 다섯 개의 주요 연골이 그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 thyroid cartilage, cricoid cartilage, 한 쌍의 arytenoid cartilage, 그리고 epiglottis 가 그것이다. 연골과 아울러 말소리의 생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쌍의 vocal folds 가 있다. vocal folds 가 떨어져 만들어 지는 간격을 glottis 라고 한다. 그림 이제 위에서 사용한 메타언어에 대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현실을 살펴 보자.

표 1 에서 보듯이 같은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가 학문의 분야마다 아주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해부학과 의학에서 쓰이는 용어가 다르다는 것이 눈에 띄인다. 해부학 책을 보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듯 해부학 용어가 처음 나오는 곳에서 해당 용어와 함께 괄호를 달아서 한자어 용어와 영어를 함께 달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cricoid cartilage 는 해부학 책에 '반지연골(윤상연골 cricoid cartilage)'[1]

¹ 국어 음성학사에서 발성 기관이나 뒤에 살펴 볼 조음 기관의 구조와 명칭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언급은 김두봉(1916, 1922)[5][6]에서였으나, 김두봉의 월북으로 학문의 전통은 최현배로 이어지게 된다.

과 같이 되어 있다. 음성학에서 쓰고 있는 듯한데, 용어가 모든 학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말 용어는 대체로 의학 용어를 따르고 있는 듯한데, 때에 따라서는 용어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cricoid cartilage 를 일부 음성학 책에서는 환상연골로, 일부 음성학 책에서는 의학 용어를 따라서 윤상연골로 적고 있으며, arytenoid cartilage 를 김승곤(1992)[7]에서는 과열연골로 적고 있는데, 이는 피열연골의 오자인 듯이 보인다. 국어학 쪽에서 쓰이는 최현배(1961)과 허웅(1965)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특기할 만하다.

표 1. Larynx 부위의 용어 대조표(-은 해당되는 용어가 없는 경우).

	해부학	의학	음성학	최현배 (1961)	허웅 (1965)
hyoid bone	목뼈	설골	설골 (혀뼈)	혀뼈	-
larynx	후두	후두	후두	울대 ² 머리	후두
thyroid c.	방패연골	갑상연골	갑상연골	방패 어린뼈	방패 어린뼈
cricoid c.	반지연골	윤상연골	환상 (윤상) 연골	가락짜 어린뼈	가락지 어린뼈
arytenoid c.	모뿔연골	피열연골	피열연골	헤침 어린뼈	헤침 어린뼈
epiglottis	후두덮개	후두개	후두개	울대마개	울대마개
vocal folds	성대주름	성대	성대	목청	목청
glottis	성대문	성문	성문	소리문	성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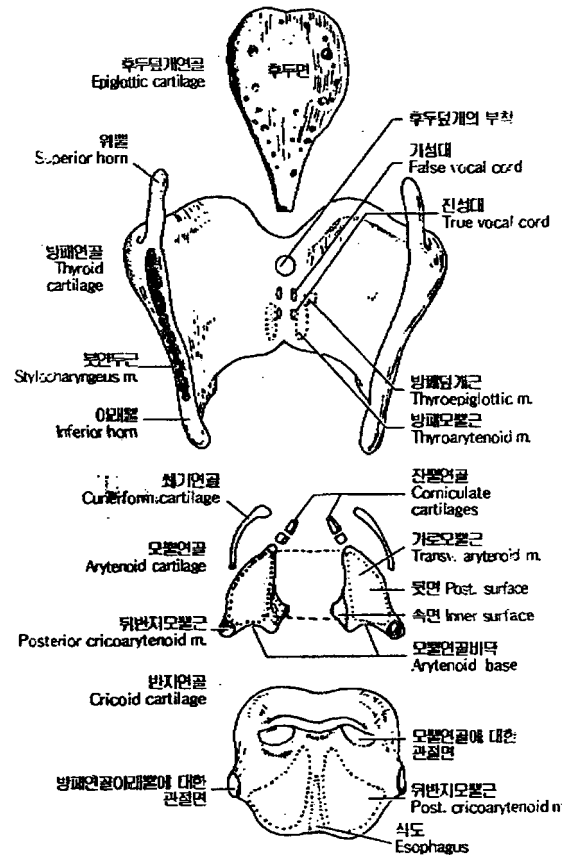


그림 13-13. 뒤쪽에서 본 후두연골.

그림 2. 후두의 연골들(대한해부학회, 1999[1]).

2.2. 혀³

혀의 부위별 명칭은 해부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듯하다. 그림 3에서 보듯이 해부학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혀의 부위에 대한 명칭은 body of tongue 과 apex of tongue 이 전부이다.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혀의 부위별 명칭은 tongue 그 자체를 포함하여, tip, blade, body, formt, central, back root 등이 있다. 해부학, 의학, 음성학, 최현배(1961), 허웅(1965)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표 2 에 정리해 보았다. 그림 3 은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혀의 구분을 보여 주고 있다.

혀의 부위별 명칭 또한 해부학 용어는 우리말로, 의학 용어는 한자어로 된 것이 특징적이다.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허웅(1965)에서 혀끝은 여타의 경우와는 달리 blade 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허웅(1965)에서 tip 은 설첨으로 대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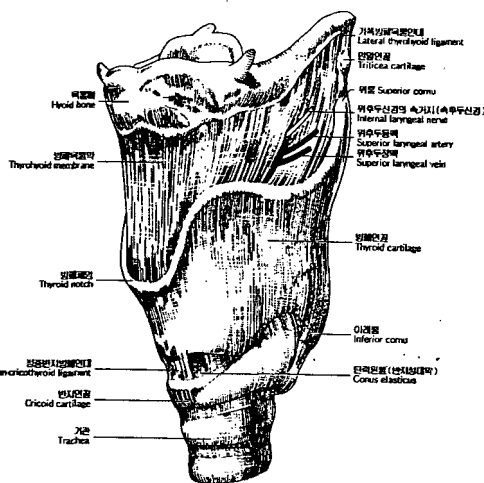


그림 13-14. 앞쪽에서 본 후두의 연골

그림 1. 후두의 전체 모습을 옆에서 본 것(대한해부학회, 1999[1]).

² 울대는 기관(trachea)을 지칭하는 말이다.

³ 모든 분야에서 tongue 은 혀로 대응된다.

표 2. 혀의 부위별 명칭(-은 해당되는 용어가 없는 경우).

	해부학	의학	음성학	최현배 (1961)	허용 (1965)
tongue	혀	혀	혀	혀	혀
tip	혀끝	설첨	설첨 (혀끝)	혀끝	설첨
blade	-	-	설단 (혓날)	혀앞	혀끝
body	혀몸통	설배	혓몸 (설배)	혓바닥	혓바닥
front	-	-	전설	앞	앞
central	-	-	중설	가운데	-
back	-	-	후설	뒤	뒤
root	혀뿌리	설근	혀뿌리 (설근)	혀뿌리	혀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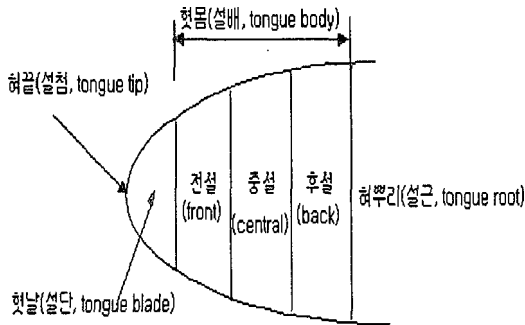


그림 3.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혀의 부위.

2.3. palate

palate의 부위별 명칭 또한 각 분야에서 매우 다른 용어가 쓰이고 있다. 해부학, 의학, 음성학, 최현배(1961), 허용(1965)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표 3에 정리해 보았다. 그림 4는 발음기관의 명칭을 자세히 보여 주고 있다. 자세하지는 않지만 입천장 부분의 구분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은 입천장의 앞부터 뒤까지 언어학적으로 의미있는 부위별 명칭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입천장의 부위별 명칭.

	해부학	의학	음성학	최현배 (1961)	허용 (1965)
alveolar	잇몸	치경	치경 (치조)	잇몸	잇몸
palate	입천장	구개	구개	이봉	입천장
hard palate	단단입천장	경구개	경구개	센 이봉	센입천장
soft palate	물렁입천장	연구개	연구개	여린 이봉	여린입천장
uvular	목젖	구개수	구개수	목젖	목젖

2.4. 그 외

그 외 음성학적으로 의미있는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pharynx (naso-, oro-, laryngo-, pharynx), oral cavity, nasal cavity 등이 있다. 각각의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그림 5에 보였다. pharynx는 nasal cavity, oral cavity 및 larynx의 뒤에서 머리뼈의 바닥에서 여섯째 목뼈까지 뻗어 있으며, 식도로 이어지는 공간을 지칭한다. 길이는 약 12cm 정도이며, 앞뒤로 납작하게 되어 있는데, 코쪽의 윗부분이 가장 넓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져서 식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좁다. Pharynx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코와 연결된 부위가 nasopharynx로 soft palate의 뒷부분을 지칭한다. Uvular의 끝부분에서 epiglottis까지의 공간을 oropharynx라고 하고, epiglottis의 위쪽 끝에서 식도로 이어지는 cricoid cartilage의 아랫모서리까지를 laryngopharynx라고 한다. 입안의 공간을 oral cavity, 코안의 공간을 nasal cavity라고 한다. 해부학, 의학, 음성학, 최현배(1961), 허용(1965)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표 4에 정리해 보았다. 그림 5는 각 명칭이 지칭하는 기관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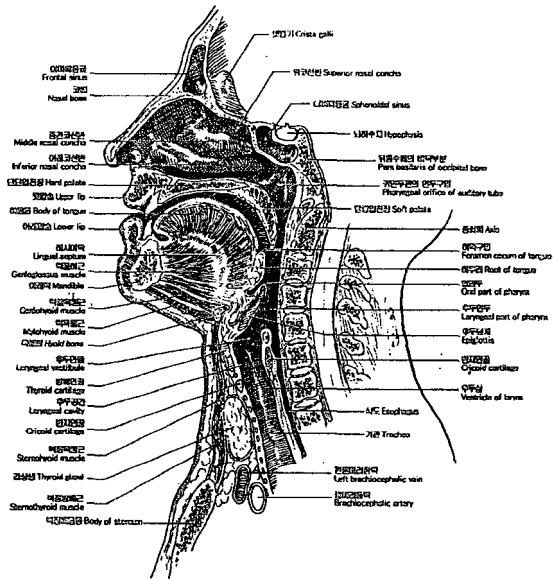


그림 4-1. 머리와 목의 정중 사상단면으로서 코, 입, 인두 및 후두부위를 보여준다.

그림 4. 발음기관(대한해부학회, 1999[1]).

표 4.

	해부학	의학	음성학	최현배 (1961)	허용 (1965)
pharynx	인두	인두	인두	목머리	인두
nasopharynx	코인두	코인두	코인두	-	-
oropharynx	입인두	입인두	입인두	-	-
laryngopharynx	후두인두	후두인두	후두인두	-	-
oral cavity	입안	구강	구강	입굴	구강
nasal cavity	코안	비강	비강	코굴	코안(?)

3.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발음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어떠한 형태로 각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크게는 같은 학문 분야로 묶을 수 있는 해부학의 용어와 의학의 용어가 다르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의학 용어에 비하여 해부학에서 쓰이는 우리말 용어는 고유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모국어 화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기억하기 좋아서 명칭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반면에 의학 용어들은 생경한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한자로 쓰여 있지 않으면 명칭이 주는 정보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의학에서 쓰이고 있는 피열연골은 연골의 기능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성대를 벌려 헤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화자 중에서 누가 '피열'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벌려 헤친다는 의미를 연상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한자어 용어는 학습에 부담을 주고 지식을 추상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⁴.

따라서 신체의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들을 고민하고 정착시키는 일은 해부학계의 몫이므로 그러한 이유에서도 해부학적인 용어를 따르는 것이 이치에 맞으며, 용어 자체가 주는 정보의 양이나 기억의 편의 등을 비추어 봐도 해부학적인 용어는 손색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음성학에서도 발음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의학 용어를 따르기 보다는 해부학 용어를 따르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

후두의 연골을 지칭하는 용어의 경우는 우리가 오늘 당장 해부학 용어를 따른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입천장(구개)을 지칭하는 용어들이다. 왜냐하면, 입천장의 각 부위 명칭은 자음의 명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기 때문이다. 말소리(특히 자음)를 나는 자리(조음 위치)에 따라서 분류할 때 입천장이 그 기준이 되며, 따라서 각 부위를 어떻게 명명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해부학에서는 앞에서부터 잇몸, 단단입천장, 물렁입천장, 목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음성학이나 음운론에서는 흔히 치경, 경구개, 연구개, 구개수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자로 된 용어를 지양하고 우리말 용어를 쓰는 경우에도 해부학 용어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서 앞서 살펴 보았듯이 단단입천장 대신 센입천장을 물렁입천장 대신 여린입천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해부학에서 쓰이는 용어가 우리말로 되어 있어 이해가 쉽고 기억하기 좋은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해부학적 용어는 해부학에서 공인한 용어를 따르는 것이 원칙에 맞기는 하지만, 문제는 기존에 음성학 음운론에서는 이 용어들이 너무나도 생소한 용어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해부학적인 용어를 따라서 입천장의 부위별 명칭을 정한다면, [j]는 더 이상 치경 무성 폐쇄음이 아니고 잇몸 무성 폐쇄음이 되어야 하며, [c]는 더 이상 경구개 무성 폐쇄음이 아니고, 단단입천장 무성 폐쇄음이 되어

야 한다. 다시 말해서 후두의 연골을 지칭하는 용어를 바꾸어 통일하는 일과 입천장의 각 부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바꾸어 통일하는 일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여타의 분야와의 관계 보다는 음성학계 내부에서의 용어 통일이다. 제각각 사용되는 용어들은 학습에 부담을 주고 여러 모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보화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1] 대한해부학회 1999. 해부학. 고려의학.
- [2]
- [3] 최현배 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4] 허웅 1965. 국어음운학. 정음사
- [5] 김두봉 1916 조선말본
- [6] 김두봉 1922. 김두봉조선말본.
- [7] 김승곤 1992. 음성학. 과학사

⁴ 이러한 의미에서 최현배(1961)과 허웅(1965)에서는 이를 혀침 여린뼈라고 명명하였다.